

내의 소재에 대한 재질선호 및 요구 성능에 대한 연구

박영희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교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Material quality and the Demand Performance of Clothing for Underwear Materials.

Young-Hee Park

Dept. of Fashion & Clothing, Kyungnam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Abstract : This study has been made to examine the basic information, the preferences of material quality, and the demand performance of clothing for underwear materials between atopic patients and non-patients. The measurement tool was a questionnaire. For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crosstabs, χ^2 -test, t-test and ANOVA through SPSS for Windows(version 14.0) were use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The degree of the basic knowledge about clothing materials indicated that women was higher than men. The material decision method and the most considering part in case of selecting underwear products showed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preference factors for underwear material quality were drawn with the five factors of sense of weight/pliability, lustering/see-through, tactility, and sense of cold and warmth. The preferred underwear material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atopic dermatitis, and degree of strength of skin itching caused by clothing materials. The demand performances of clothing in case of selecting underwear were drawn with the four factors of hygiene/practicality, skin protection, quality of materials, and aesthetic attribute. The demand performance of underwear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atopic dermatitis, degree of strength of skin itching caused by clothing materials.

Key words : preference of material quality, demand performance of clothing, underwear

1. 서 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대기오염의 증가 등과 같은 폐해로 점차 건강 및 환경보전 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의류제품에도 반영되어 의복 디자인적 요소 중 소재의 중요성은 커졌으며, 자연친화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의복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더욱 증대하였다. 이에 의류 업체에서는 비타민 의류, 홍삼 내의, 우유 단백질 함유소재 그리고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소재 등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기능 의류제품(헤럴드 경제, 2003)들을 대거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의복 중 내의류는 외의류에 비해 피부와 좀 더 근접한 의복 중의 하나로 비질환자 뿐만 아니라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자들은 의복소재 선택에 있어 일상복 보다 내의 선택 시 더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각종 피

부소양증으로 고생하는 피부 질환자들에게 내의는 단순한 착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때문에 피부건강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의에 대한 친환경 상품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내의제품들 중에는 유기농 재배의 목화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에서부터 대나무, 쿨라겐, 키토산, 녹차, 참숯, 은행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내의 그리고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소재를 이용하여 피부질환을 방지 또는 혈액순환장애 개선 등을 기능으로 한 세라믹 건강내의와 원적외선 한약초 내의(어패럴 뉴스, 200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콜로지 및 건강 내의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SPA Health 센터 의학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텐셀 소재로 만든 잠옷에 대해 임상의학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토피 예방 및 치료에 좋다는 실험 결과(Fashion news, 2003)를 발표하는 등 내의 소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래에는 오가닉 코튼과 같은 유기농 섬유제품들이나 에코라벨 등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Style news, 2003). 이러한 내의 및 일상복의 소재와 관련된 학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 선호도를 비교한 연구(안춘순 외, 2001),

Corresponding author; Young-Hee Park
Tel. +82-19-519-3797, Fax. +82-53-950-6219
E-mail: hekim@knu.ac.kr

남성의 춘추용 드레스 셔츠 소재의 선호도에 대한 파악(김경희, 최종명, 2006), 의류 제품 구매 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들이 형성하는 소재에 대한 선호구조 파악(정인희, 2002),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의 조사(김희숙, 나미희, 2002), 여자 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선호에 대한 파악(정인희, 2001)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상의 연구는 주로 외의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점차 소비자들은 생활전반에 자연친화 및 건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내의 소재에도 다양한 기능성들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의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적 선호도나 요구 성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가장 근접한 의복 중의 하나인 내의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 정보와 소재 재질 선호도 및 요구 성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내의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내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대의 아토피 피부질환자와 비질환자를 대상으로 내의 소재에 대한 기본적 정보, 재질 선호도 그리고 요구 성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대 남녀 소비자의 내의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성별과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3. 내의 소재 재질선호도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문제 4. 내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선호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5.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6. 선호요인에 대한 3변인(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7. 내의에 대한 요구 성능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문제 8. 내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문제 9.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른 요구 성능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10. 요구 성능에 대한 3변인(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설문지의 구성은 인

구 통계적 요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구매정보,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내의소재의 선호도 그리고 내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의복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는 지난 12개월 동안 의복소재에 의해 피부가려움의 경험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이며, 내의 소재 재질감 선호도는 선행연구 라체숙(2005)의 연구와 홍경희 외(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선택 수정한 내용으로 총 23문항 중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한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7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 문항은 선행연구 정인희(2002)의 연구와 김희숙, 나미희(2004)의 연구에서 선택 수정한 내용으로 총 25문항 중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 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과 비질환자들의 내의 소재 선호도와 요구 성능에 대한 연구이므로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과 비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11월에서 2008년 2월에 걸쳐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회수된 500부 중 분석의 신뢰도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20부를 제외하고 480부를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20대의 남녀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은 총 193명으로 이 중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90명, 비질환자가 103명이며, 여성은 총 287명으로 이 중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164명, 비질환자가 12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판단은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판정받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신뢰도 검증, χ^2 검증, 요인분석, t검증,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내의소재에 대한 기본 정보

20대 남녀의 의복소재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남자 35.3%, 여자 16.7%,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남자 14.0%, 여자 27.5%로 여자가 남자보다 소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의 선택 시 소재의 판단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제품의 라벨이 29.0%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제품의 라벨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

Table 1. 의복 소재에 대한 지식 정도 단위: n(%)

지식 정도	성별	
	남	여
알지 못 한다	68(35.3)	48(16.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8(50.8)	160(55.7)
잘 알고 있다	27(14.0)	79(27.5)
합계	193(100.0)	287(100.0)

Table 2. 내의 제품 선택 시 소재 판단 방법 단위: n(%)

판단방법	성별	
	남	여
판매자에게 문의	39(20.2)	44(15.3)
본인의 경험	67(34.7)	108(37.6)
제품의 라벨	56(29.0)	111(38.6)
소재에 무관심	31(16.1)	24(8.3)
합계	193(100.0)	287(100.0)

Table 3. 내의 제품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 단위: n(%)

고려부분	성별	
	남	여
소재의 종류	49(25.4)	97(33.8)
소재디자인	128(66.3)	185(64.5)
소재 기능성	10(5.2)	4(1.4)
광고여부	6(3.1)	1(0.3)
합계	193(100.0)	287(100.0)

며, 다음으로 본인의 경험 37.6%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에 무관심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남자가 16.1%, 여자가 8.3%로 남자가 여자보다 내의 소재부분에 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의 선택 가장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3 과 같이 소재디자인이 남자 66.3%, 여자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재의 종류가 남자 25.4%, 여자 33.8%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소재기능성이나 광고여부는 약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내의 선택 시 소재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의복 소재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의복소재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소재의 무늬로 나타난 안신우(2002)의 연구결과와 복종은 다르나 내용상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 또한 20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디자인적인 부분은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내의 구매 장소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남여 모두 백화점이 각각 24.9%,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인터넷과 시장 및 상가가 공히 22.3% 그리고 대형마트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대형마트 18.9%, 인터넷 16.4% 그리고 시장 및 상가

Table 4. 내의 구매 장소 단위: n(%)

구매장소	성별	
	남 (n=193)	여(n=287)
백화점	48(24.9)	85(29.7)
인터넷	43(22.3)	47(16.4)
대형마트	30(15.5)	54(18.9)
TV홈쇼핑	1(0.5)	7(2.4)
시장 및 상가	43(22.3)	46(16.1)
전문할인점	14(7.3)	31(10.8)
기타	12(7.2)	16(5.5)
합계	193(100.0)	287(100.0)

Table 5. 성별과 아토피 피부 질환 유무에 따라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의 차이 (n=480)

피부가려움 정도	성별			t value
	남	여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3.23	3.43		-1.863

Table 6.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에 따라 의복소재가 피부가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n=480)

피부 가려움정도	아토피피부질환유무		t value
	유	무	
소재에 대한 피부 가려움 정도	3.56	3.11	-4.465***

***p<.001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TV홈쇼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2. 성별과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남여 모두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20대 남여 모두 의복소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피부가려움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에 따라 의복소재를 통해 피부가려움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즉 아토피 피부질환자들이 비질환자들에 비해 의복소재에 의한 피부가려움에 대해 더 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정 외(2004)의 연구와 박영민 외(1997)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아토피 피부질환자들은 피부장벽의 기능이 손상되어 염증 상태의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건조한 피부에는 정상 피부에서보다 알레르겐이나 자극원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아토피 피부질환자는 비질환자들에 비해 피부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3.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

20대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과 비질환자들의 내의 소재 재

Table 7. 내의 소재의 재질감에 대한 선호도 요인

요인1-무게감·유연성요인		요인2-표면특성요인		요인3-광택·투명성요인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투박한-투박하지않은	.859				
두꺼운-얇은	.853				
딱딱한-부드러운	.829				
무거운-가벼운	.765	결끄러운-매끈한	.759	광택있는-무광택의	.800
뻣뻣한-유연한	.743	우툴두툴한-편편한	.741	투명한-불투명한	.741
거친-섬세한	.698	사각사각소리나는-소리나지 않는	.665	하늘하늘한-하늘하늘하지 않은	.568
까실까실한-매끄러운	.581				
촉촉한-성근	.576				
변량 = 25.59%		변량 = 13.92 %		변량 = 9.10%	
누적변량 = 25.59%		누적변량 = 39.51%		누적변량 = 48.61%	
α 신뢰도 = 0.98		α 신뢰도 = 0.86		α 신뢰도 = 0.76	
요인4-감촉성요인		요인5-냉온감요인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바삭바삭한-흐물흐물한	.716	차가운-따뜻한	.839		
보송보송한-촉촉한	.688	딱딱한-포근한	.600		
늘어지지않는-늘어지는	.621				
변량 = 8.65%		변량 = 8.04%			
누적변량 = 57.26%		누적변량 = 65.29%			
α 신뢰도 = 0.70		α 신뢰도 = 0.72			

질의 선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개의 형용사쌍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요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구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 1.0이상으로 하여 Varimax직교회전을 시킨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재질선호도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1은 투박한-투박하지 않은, 두꺼운-얇은, 딱딱한-부드러운, 무거운-가벼운, 뻣뻣한-유연한, 거친-섬세한, 까실까실한-매끄러운, 촉촉한-성근의 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무게감·유연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25.59%를 차지하였다. 요인2는 결끄러운-매끈한, 우툴두툴한-편편한, 사각사각 소리 나는-소리 나지 않는의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표면특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13.92%를 차지하였다. 요인3은 광택 있는-무광택의, 투명한-불투명한, 하늘하늘한-하늘하늘하지 않은의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광택·투명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9.10%를 차지하였다. 요인4는 바삭바삭한-흐물흐물한, 보송보송한-촉촉한, 늘어지지 않는-늘어지는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감촉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8.65%를 차지하였다. 요인 5는 차가운-따뜻한, 딱딱한-포근한의 2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냉온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8.04%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내의 소재 재질선호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성별, 아토피 피부염 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에 따른 소재 재질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8에서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내의소재 재질의 선호도 차이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가볍고 유연하며 광택성이 있는 재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슬랙스용 소재로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한다는 김희숙, 나미희(2002)의 선행연구결과와 복층은 다르나 전체적인 내용상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결과,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비질환자 보다 광택이 없고 불투명한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따른 내의 소재 재질의 선호도 차이 결과,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 가려움이 약간 그리고 심한 경험집단이 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에 비해 더 가볍고 유연하며, 소재표면이 매끈하고 따뜻한 재질의 내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은 감촉적인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의 소재 재질 선호요인에 대한 3가지의 변인 즉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무게감·유연성($p<.05$), 표면특성($p<.05$) 그리고 감촉성 요인($p<.05$)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광택·투명성과 냉온감 요인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무게감·유연성요인에 대해서는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Fig. 1에서와 같이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과 심한 경험집단은 여자가 더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호하였으며, 소재에 대해 약간의 피부가려움 경험 집단은 남자가 더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Table 8. 성별 및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내의소재 재질 선호도차이

선호도 요인	변인		t value	아토피 피부염 유무		
	남 (n=193)	여 (n=287)		무 (n=226)	유 (n=254)	t value
무게감 · 유연성	5.647	5.870	-2.675**	5.754	5.803	-0.591
표면특성	5.264	5.251	0.138	5.292	5.224	0.710
광택 · 투명성	3.526	3.955	-4.081***	3.620	3.921	-2.946*
감촉성	3.922	3.962	-0.327	3.904	3.983	-0.666
냉온감	5.251	5.436	-1.715	5.378	5.347	-0.301

*p<.05 **p<.01 ***p<.001

Table 9.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의 정도에 따른 내의소재 재질 선호도차이

선호도 요인	변인			
	없음(n=82)	약간(n=139)	심함(n=259)	F
무게감 · 유연성	5.506a	5.777b	5.869b	5.140**
표면특성	4.886a	5.225b	5.390b	7.589***
광택 · 투명성	3.717	3.724	3.830	0.573
감촉성	4.263b	3.915a	3.857a	2.941*
냉온감	4.936a	5.336b	5.470b	4.549**

*p<.05 **p<.01

a, b, c는 Duncan test결과임. a<b

Table 10. 소재 재질 선호도에 대한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와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선호도요인		무게감 · 유연성		표면특성		광택 · 투명성		감촉성		냉온감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성별*아토피유무	0.14	0.18	1.25	1.25	0.50	0.41	8.59	4.17*	0.43	0.34		
성별*소재에 대한 가려움정도	4.10	3.01*	4.47	2.15	2.23	0.91	6.72	2.67	1.84	0.72		
아토피유무*소재에 대한 가려움정도	2.63	1.69	7.75	3.73*	5.36	1.37	3.77	1.17	5.12	2.01		

*p<.05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특성 요인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 가려움 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Fig. 2와 같이 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이 약간 또는 심한 경험 집단은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소재에 대한 피부 가려움 미경험 집단은 비질환자가 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의 내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비질환자에 비해 의복 소재에 대해 약간 또는 더 심한 피부 가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질환자들은 의복소재에 대해 가려움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토피 피부질환자는 피부표면이 건조하거나 손상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피부자극에 대하여 비질환자 보다 더욱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감촉성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과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Fig. 3과 같이 아토피 피부질환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비질환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더 감촉적인 재질의 내의를 선호하였다.

3.4. 내의에 대한 요구 성능

20대의 아토피 피부질환자들과 비질환자들의 내의 소재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22개의 형용사 쌍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 수는 고유값 1.0이상으로 하여 Varimax직교회전을 시킨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구하였으며, 소재 재질선호도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1은 착용용이성, 의복형태안정성, 땀 흡수성, 통기성, 기온적합성, 활동성, 치수 그리고 의복세탁편리성의 8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위생 · 실용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37.79%를 차지하였다. 요인2는 피부결점보완성, 자외선차단성, 피부자극성, 피부접촉감 그리고 기능성의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피부보호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11.86%를 차지하였다. 요인3은 보풀, 정전기, 품질, 봉제 상태의 4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소재 품질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7.8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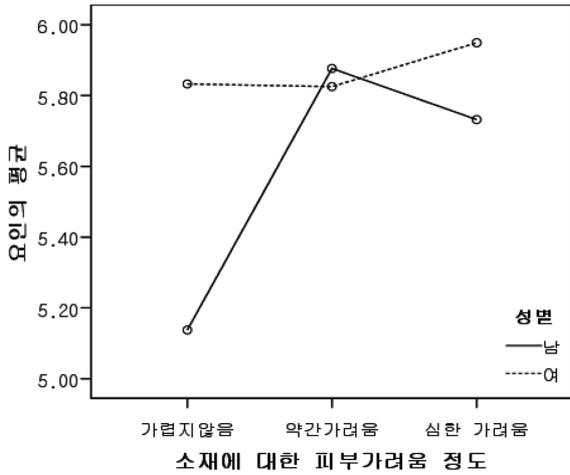


Fig. 1. 무게감유연성 요인에 대한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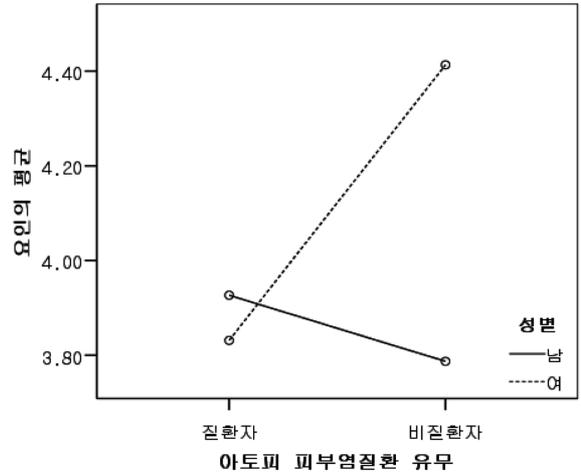


Fig. 3. 감촉성 요인에 대한 성별과 아토피 피부염 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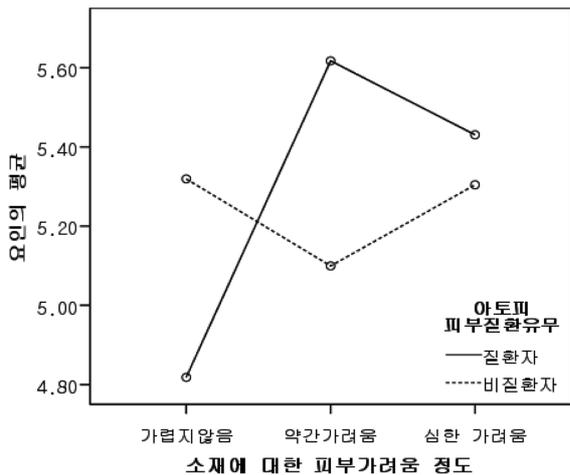


Fig. 2. 표면특성 요인에 대한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

요인4는 디자인, 색상 및 무늬, 전체적 실루엣, 유행스타일, 세부장식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심미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5.06%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내의소재에 대한 요구 성능의 요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3가지 변인(성별, 아토피 피부염 유무 그리고 소재가 피부가려움의 정도)에 따른 내의소재에 대한 요구 성능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12와 Table 13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내의 소재의 요구 성능 차이 결과 여자가 위생·실용성, 피부 보호성 그리고 소재의 품질성에 대한 성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남자는 심미성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요구 성능의 차이 결과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비질환자 보다 위생·실용성 그리고 심미성

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른 요구 성능의 차이 결과 의복소재에 대해 약간 또는 심한 피부가려움 경험집단이 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 보다 위생·실용성, 피부 보호성 그리고 소재 품질성에 대한 성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른 내의 소재의 요구 성능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14와 같이 나타났다. 즉 피부 보호성, 소재 품질성 그리고 심미성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나, 위생·실용성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보호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Fig. 4와 같이 의복소재에 의해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과 약간의 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은 여자가 남자보다 내의에 대해 피부보호성에 대한 성능을 더욱 요구하였으며, 심한 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은 남자가 여자보다 피부 보호성을 더욱 요구하였다. 또한 남자는 소재에 의해 피부가려움에 대한 경험이 심할수록 내의의 피부보호 성능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품질성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결과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Fig. 5)에 그리고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Fig. 6)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먼저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내의 요구 성능으로 소재 품질성을 더욱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의복 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이 미경험 집단 보다 소재의 품질성을 더욱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있어서는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 미경험 집단과 약간 경험한 집단은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내의 성능으로

Table 11. 내의 선택 시 요구 성능 요인

요인1-위생·실용성		요인2-피부보호성		요인3-소재품질성		요인4-심미성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착용용이성	.724						
의복형태안정성	.675	피부결점보완성	.814	보풀	.828	디자인	.811
땀흡수성	.674	자외선차단성	.761	정전기	.731	색상 및 무늬	.759
통기성	.613	피부자극성	.728	품질	.678	전체적 실루엣	.734
기온적합성	.565	피부접촉감	.621	봉제 상태	.610	유행스타일	.715
활동성	.553	기능성	.549			세부장식	.600
치수	.542						
의복세탁편리성	.540						
변량 = 37.79%		변량 = 11.86%		변량 = 7.80%		변량 = 5.06%	
누적변량 = 37.79%		누적변량 = 49.65%		누적변량 = 57.45%		누적변량 = 62.51%	
고유치 = 8.31		고유치 = 2.61		고유치 = 1.72		고유치 = 1.11	
α신뢰도 = 0.87		α신뢰도 = 0.85		α신뢰도 = 0.83		α신뢰도 = 0.79	

Table 12. 성별과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른 내의 요구 성능의 차이

요구성능	변인		성별	t value	무	아토피 질환유무	
	남	여				유	t value
위생·실용성	3.665	3.834	3.834	-3.431**	3.678	3.840	-3.356**
피부보호성	3.743	3.975	3.975	-3.196**	3.834	3.923	-1.241
소재품질성	3.888	4.235	4.235	-5.151***	4.040	4.144	-1.530
심미성	3.745	3.681	3.681	-3.506**	3.444	3.727	-4.309***

p<.01 *p<.001

Table 13.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른 내의 요구 성능의 차이

요구성능	변인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정도		F
	없음	약간	심함	F	
위생·실용성	3.447a	3.820b	3.830b	17.300**	
피부보호성	3.710a	3.991b	3.961b	3.065*	
소재품질성	3.775a	4.153b	4.158b	8.624***	
심미성	3.546	3.663	3.579	0.862	

*p<.05, **p<.01, ***p<.001

a, b, c는 Duncan test결과임. a<b

Table 14. 내의 요구 성능에 대한 성별, 아토피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요인	위생·실용성		피부보호성		소재품질성		심미성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자승합	F
성별*아토피피부질환유무		0.01	0.04	0.02	0.04	0.25	0.56	0.71	1.57
성별*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정도		1.17	2.43	3.90	3.55*	5.05	5.53**	0.55	0.61
아토피유무*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0.96	1.99	1.54	1.40	2.73	2.99*	10.90	12.08***

*p<.05 **p<.01 ***p<.001

소재 품질성을 더욱 요구하였으며, 피부가려움을 심하게 경험한 집단은 비질환자가 소재 품질성을 더욱 요구하였다. 또한 비질환자의 경우에는 피부가려움에 대한 경험이 심할수록 소재 품질성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 피부질환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이 소재품질성에 대한 성능을 가장 크게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소재에 의해 피부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이 내의 요구 성능으로 소재 품질성을 더 크게 요구한 것은 피부가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가려움

을 느끼지 않는 집단에 비해 성격적으로 또는 피부 자체가 더욱 예민해져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심미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결과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는데,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의 미경험 집단은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피부가려움을 약간 경험한 집단은 비질환자가 내의 성능 중 심미성을 더욱 요구하였다. 특히 피부 가려움을 약간 경험한 집단은 아토피 피부질환자와 비질환자 간에 심미성에 대한 요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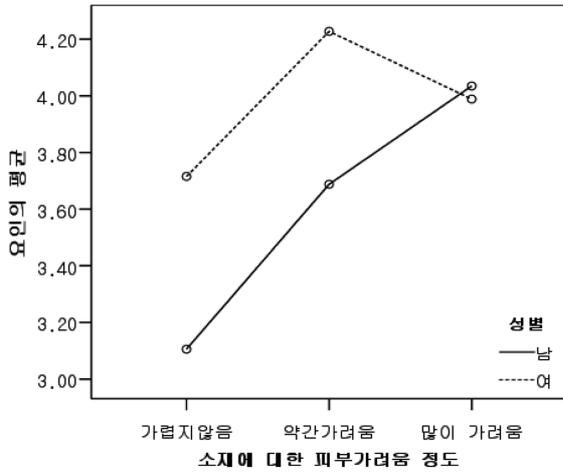


Fig. 4. 피부 보호성 요인에 대한 성별과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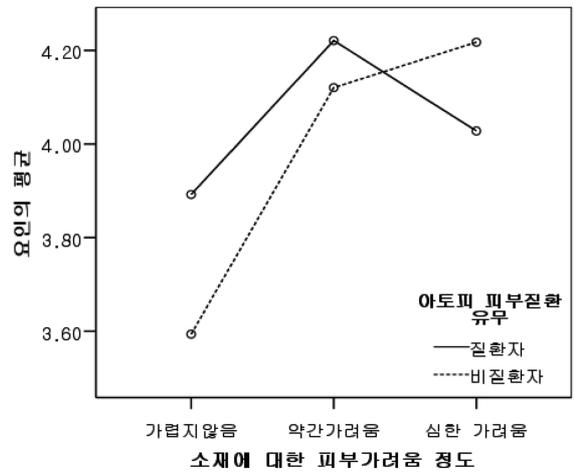


Fig. 6. 소재 품질성 요인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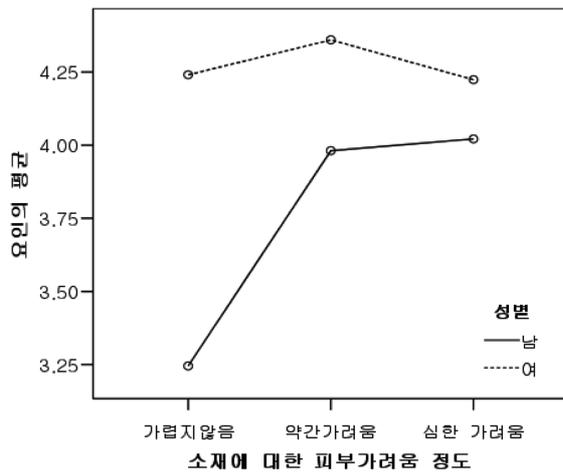


Fig. 5. 소재 품질성 요인에 대한 성별과 소재에 대한 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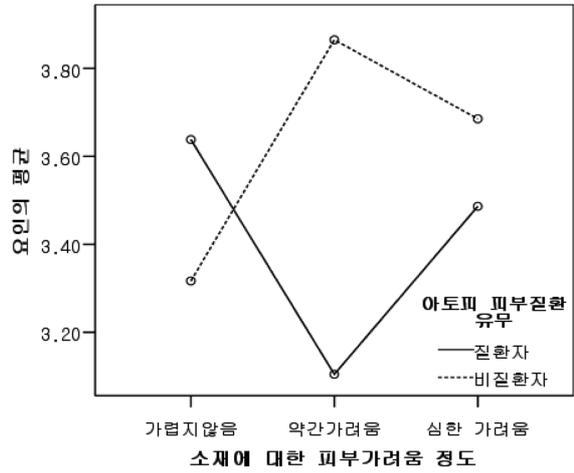


Fig. 7. 심미성 요인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가장 근접한 의복환경 중의 하나인 내의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 정보와 소재 재질 선호도 및 요구 성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내의소재에 대한 지식성도는 여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내의 선택 시 소재 판단 방법에 있어 남자는 본인의 경험, 여성은 제품의 라벨이, 내의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남녀모두 소재디자인 그리고 내의 구매 장소는 남녀 모두 백화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피부가려움의 차이가 없었으나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는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피부가려움정

도가 더 컸다.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의 요인은 무게감·유연성, 표면특성, 광택·투명성, 감촉성, 냉온성의 5개로 도출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여자가 더 가볍고 유연하며 광택성이 있는 재질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무광택 및 불투명한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의복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따라서는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을 경험한 집단이 더 가볍고 유연하며, 표면이 매끈하며 따뜻한 재질의 내의 소재를 선호하였다. 소재 재질 선호도에 대해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 결과 무게감·유연성 선호도에 대해서는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 표면특성 선호도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 감촉성 선호도에 대해서는 성별과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 간 상

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아토피 피부질환자들과 비질환자들의 내의 소재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 요인은 위생·실용성, 피부 보호성, 소재 품질성 그리고 심미성의 4개로 도출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위생·실용성, 피부 보호성 그리고 소재의 품질성에 대한 성능을 더욱 요구한 반면 남자는 심미성을 더 요구하였다.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아토피 피부질환자가 위생·실용성 그리고 심미성에 대한 성능을 더욱 요구하였다.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라서는 의복소재에 대해 피부가려움을 약간 또는 심한 경험집단이 위생·실용성, 피부 보호성 그리고 소재 품질성에 대한 성능을 더 요구하였다. 내의 요구 성능에 대한 성별,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 그리고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 결과 피부보호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소재 품질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그리고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심미성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질환 유무와 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간에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성별이나 아토피 피부질환의 유무 그리고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에 따라 내의 소재의 재질 선호도나 요구 성능에 차이를 가져 옴으로써 내의 소재 기획 및 개발 시 선호된 내의 소재 재질 요인과 요구된 내의 성능을 성별, 아토피 피부염 질환여부 또는 의복소재에 대한 피부가려움 정도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내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보다 구체적으로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계절별로 선호되는 내의 디자인 및 소재 그리고 요구되는 성능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20대로 한정되었으며, 지역 또한 경남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참고문헌

김경희, 최종명. (2006). 직장 남성의 춘추용 드레스 셔츠 착용실태 및 소재 선호도. *복식문화학회지*, 14(2), 299-309.

김희숙, 나미희. (2002).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81-389.

김희숙, 나미희. (2004). 자켓용 소재의 태와 감성 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387-396.

라채숙. (2005). *웨딩드레스의 선택행동 및 이미지와 소재 선호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민, 박홍진, 김태윤, 김정원. (1997). 피부과 외래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상대 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검사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5(1), 96-106.

안신우. (2002). *동대문 패션상가 소비자의 의복 소재 선호도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춘순, 이승희, 양윤, 임숙자. (2001). 한국과 미국의 여성 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미 소비자 선호도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9(2), 217-227.

어패럴 뉴스. (2003, 11. 01). 동내의 시장에 기능성 바람-Marketing News-. 자료검색일 2008, 3. 2,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s.net/include/news>

정인희. (2001). 여자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4), 629-638.

정인희. (2002). 의류제품 구매 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소재 선호 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1), 83-94.

헤럴드 경제. (2003, 10. 24). 건강을 지켜주는 다기능 웰빙의류 붓물-Marketing News-. 자료검색일 2008, 3. 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s.net/include/news>

홍경희, 김재숙, 박춘순, 박길순, 이영선, 김재임. (1994). 여성복 춘추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제1보)-태의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327-338.

최혜정, 김규한, 김명남, 김진우, 노영석, 박처옥, 양준모, 이광훈, 이애영, 이정덕, 조상현. (2004). 아토피 피부염 연구회 보고서:실문지에 의한 한국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42(9), 1152-1160.

Fashion News. (2003, 3. 25). 텐셀 아토피 피부염 예방-독 SPA Health 센터 의학부 실험. 자료검색일 2008, 3. 5, 자료 출처 <http://www.fashion-news.co.kr>

Style News. (2003, 10. 24). Organic Cotton 시장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자료검색일 2008, 3. 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s.net/include/report>

(2008년 7월 17일 접수/ 2008년 9월 3일 1차 수정/ 2008년 9월 26일 2차 수정 /2008년 12월 4일 게재확정)